

담양군, 재정 한계 속 ‘군민 체감’ 정책 집중

재난복구·생활밀착 복지사업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

재정 건전성·실효성 고려한 결정

담양군이 재정 한계 속에서 군민 삶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한된 재원을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며 “실효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 담양군 본예산은 총 5천265억원 규모로

▲사회복지(1천251억원) ▲농업(1천95억원) ▲환경(792억원) ▲문화·관광(320억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가용 군비는 약 2천900억원 수준으로, 대응 지방비 1천800억원과 인건비 700억원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원 남짓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담양군민 4만5천여명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약 1천620억원, 담양군이 부담할 지방비는 연간 201억원으로 가용 군비의 70

%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담양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복구사업과 생활밀착형 복지·인프라 개선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1천230억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의 항구적 복구에 나섰으며 피해 주민 3천400여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했다.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32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접수된 1천857건

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단기적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한정된 예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가 지난 22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가운데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 성황

20개 기업·협회와 협약 체결

국가산단·드론 산업 거점 탄력

고흥군이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 개최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과 투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전남도와 공동 주관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기업·협회, 연구기관,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의 미래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 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우주·항공(드론·UAM) 관련 20개 기업·협회와 업무·투자협약(MOU)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화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오세진 FineVT 로보틱스 소장, 미철 윌리엄스 SKYPORTS 한국지사 지사장, 양현상

국방융합기술연구소 소장, 이재광 NH증권 수석연구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고흥의 우주항공산업 성장 가능성과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출발지이자 미래 성장의 거점”이라며 “이번 비즈페스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고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11월 중 광주·전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민간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현진 기자



“정성 다해 키웠습니다”

농협곡성군지부 ‘농부의 마음’ 시범사업

생산자 진심 담은 글귀 스티커로 전달

농협곡성군지부는 23일 “‘농부의 마음’ 스티커를 활용한 로컬푸드 감성마케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판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의 진심을 담은 문구를 스티커로 제작해 포장지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농부의 이야기와 정성을 전달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은 우선 곡성농협과 옥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각각 한 품목을 선정해 시행하며, 향후 성과를 평가해 다른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방현용 지부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이라며 “농부의 진솔한 마음이 소비자에게 전해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로컬푸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반려견과 힐링 러닝”

맹맹순천 개최, 내일 오전그린광장 일원서

순천시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달리는 힐링 러닝축제 ‘2025맹맹순천’을 연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1시 오전그린광장 일원에서 ‘2025맹맹순천’을 개최한다.

‘순천에서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2025 맹맹순천’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오전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동천’ 총 4km의 도심 수변을 질주하는 레이스로 진행된다.

행사는 150팀(1팀당 반려견 1마리 기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행사 당일 추가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메달과 웰컴키트(간식·스티커·가방 등)가 제공되고 현장에서는 ‘력기 퍼피 추첨 이벤트(숙박권·패션품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5 맹맹순천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도심 축제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치유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순천애니멀펍페스타(SAFF)’ 및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가 동시 진행, 순천 전역이 반려친화관광도시로 변신할 예정이다. /순천=정기자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장성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슈퍼비전’ 운영

장성교육지원청은 23일 “전날 관내 Wee센터·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슈퍼비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슈퍼비전은 김수로 장성기독교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초빙해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적 개입과 상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고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한 전문상담교사는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학생 상담 사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교육장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심리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위기 학

생의 지속적 사례 관리와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임금체불 방지”... 화순군 ‘클린페이’ 도입

신한은행·교보증권 협약

화순군은 23일 “지난 21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공사대금·임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 교보증권과 함께 차세대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해 김국환 신한은행 본부장, 김운상 교보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사업 수행 및 대금 지급을 총괄하고, 신한은행은 자금관리시스템 운영을, 교보증권은 신탁계약 업무를 담당한다.

신한은행과 페이킴스가 공동 개발한 ‘클린페이’는 체불 방지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제도를 결합한 차세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공사업체의 부도나 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공사대금이 신탁계정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원도급사는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금금 유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우선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2년간 ‘클린페이’를 시범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북구 군수는 “하도급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노동자 임금과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